

“지역사회와 상생 여성의 힘 보여주자”

2023 전북여성 신년하례회

김관영 도지사 “성별 넘어 모든 분야에서 두각 드러내”

전정희 센터장 “새로운 전북 여성계도 적극 지원할 것”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전북여성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이 행사는 '상생의 시대, 여성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전북여성의 희망찬 시작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하는 전북여성들의 힘을 보여주시는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각 분과 상임위원장, 시·군의원, 유관기관장,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

계각층의 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북여성 신년하례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여성은 성별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까지 물들이는 중”이라며 “여성계의 이러한 활동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도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1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6.1%로 전년도에 비해 7% 상승했다”며 “여성들이 일할 곳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역량을 키울 기회를 드리고자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정희 센터장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여성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여성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13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전북도의회 의원들, 여성단체장 및 여성기업인 등 각 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북여성 신년하례회 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군산 방문객 87% “다시 찾고 싶다”

시 여행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군산시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가 재방문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3일 관광객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지난해 주요 관광안내소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총 560명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행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지인에게 군산을 여행지로 추천할 의향이 있으며 87%가 향후 군산 재방문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상깊은 여행지를 묻는 질문에는 시간여행마을(41%), 고군산군도(24%), 경암철길마을(17%) 순으로 응답했으며, 시간여행마을 내에서는 초원사진관(30%), 신흥동 일본식가옥(27%), 근대미술관·건축관·위봉환(16%), 동국사(10%)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방문 결과 아쉬웠던 여행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가 경암철길마을을 지목했으며, 주차 불편과 확실히된 상점들 이외의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짜장·짬뽕 28%, 해산물

11% 이외에도 무국 빵, 생선구이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이외에도 간장게장, 곱창 갈비탕, 떡갈비, 분식, 백반 등 다양한 선호를 보였고, 전반적인 맛집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매우만족 33%, 만족 4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관광안내시스템 및 해설 서비스에 대해서는 7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대중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51%, 주차 편의에 대해서는 55%의 만족도를 보여 다른 항목들에 비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산여행의 종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만족 33%, 만족 49%로 응답자의 8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그 외에도 관광객들의 의견을 통한 불편사항 해결 및 정책 반영을 위해 개선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유 의견을 조사했으며 조사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사안별 소관 부서와 내용을 공유, 부서별로 관광객들의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여행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객의 시각에서 여행지로서의 군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2023년에도 관광객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전통문화 진흥 ‘한마음 한 뜻’ | 전통문화전당-민주 양경숙 의원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역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뜻을 모았다.

지난 13일 전당에 따르면 이날 4층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과 김종연 전라북도무형문화재 민속복조각장 박광철 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 이사장, 최영재 천안파넬비(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양경숙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당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도영 원장과 양경숙 국회의원의 축사, 전당 업무 브리핑, 전통문화 종사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양경숙 의원은 “전주는 훌륭한 작품을 많이 생산해 내는 전국의 몇 안 되는 도시로, 오래 전부터 산업화에 대한 전통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보다 더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통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며 “예산 프로세서의 기본을 알고, 예산 확보 노력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도영 원장은 “지역의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양경숙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천년 전주의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앞으로도 양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지난 13일 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지역의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 전북에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관광기업지원센터를 8곳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울산시와 함께 지역관광 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12일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열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한국관광공사와 광역지

자체가 협업해 지역 관광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거점이다. 관광 기업 발굴과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지원, 관광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9년 9월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경북센터가 운영 중이며, 울산센터는 일곱 번째다. 이달 말에는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에 8개 지역센터가 운영된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